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테희 편집국장: 조선근

-1953·교회설립 40주년·1993-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교회설립 40주년 기념행사 확정, 각 분과 준비단계로
회고·감사·전망의 행사로



▶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으며 이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우리 밖으로"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난 2월 11일 (목) 오후 7시 교회설립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갖고 4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나온 40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오늘의 충현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회고하며, 이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충현교회의 전망들을 바르게 하며 온 교우가 하나 되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데 40주년 기념행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기념행사는 행사 그 자체보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천국일꾼 양성, 지역사회 봉사,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라는 관점에서 이와 부합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행사가 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를 행사 기간으로 정한 40주년 기념행사의 각 분과별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분과

- 1) 기념예배 : 교회설립 40주년이 되는 1993년 9월 5일 (주일), 오후 1시 (Ⅳ부 예배)에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분당, 갈릴리움, 베다니홀 등을 모두 폐쇄 TV로 연결하여 동시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온 교우들과 해외 파송선교사, 해외거주 전 충현교회 교우, 교제, 학제, 언론계 및 지역기관장 및 유지등을 초청한다.
- 2) 특별 새벽기도회 및 예수사랑 큰잔치 : 10월 17일(주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한

다. 이 기간중 10월 11일-16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40주년을 맞는 감사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들과 이를 위해 실시하는 전도운동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2. 교육·양육분과

- 1) 성경암송 및 그림 그리기 대회 : 1993년 6월 중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암송 및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고 하나님과 교회 사랑,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온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 2) 학술 세미나 : 1993년 7월중에 『교회학교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평가와 방향제시』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전국 교회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의, 한국 교회의 교회교육에 대한 좌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는다.
 - 3) 새신자 교육 및 양육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새신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양육,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작성 그 시행 1차년도로 삼는다.
- ### 3. 찬양분과
- 1) 카네기홀 합창제 참가 및 미주지역 순회 공연 : 1993년 6월 25일 - 7월 6일까지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합창제에 국내 대표로 참가하고 케네디기념관, 무디교회, 수정교회 등에서 연주하며 충현교회와 해외 교회와의 연대를 맺고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충현교회 교우들에게 40년이 되는 충현교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하나되어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2) 예수사랑 큰 잔치의 찬양을 담당한다.

4. 선교분과

- 1) 선교대회 : 1993년 9월 2, 3일 본 교회당에서 전교인과 선교사, 신학교수등이 참석하여 세계선교의 흐름과 앞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선교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선교대회를 갖는다.

5. 전도분과

- 1) 기념 교회 설립 : 1994년 4월 중으로 경기도 이천에 교회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대신충현교회》를 설립한다. 기념교회는 우리 교회가 재정, 행정면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로 마치 이천지역에 세워진 또 하나의 충현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 2) 예수사랑 큰 잔치 : 1993년 10월 17일에 실시되는 "예수사랑 큰 잔치" 주무부서로 전체적인 기획과 진행, 평가를 한다.

6. 교구분과

- 1) 제5회 충현올림픽 : 1993년 5월 28일 (금),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전교인이 참석하여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며 친교하는 운동회를 한다.
- 2) 예수사랑 큰잔치 : 전도위원회와 협조하며 전교인이 참여하여 이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도운다. 예상인원 7만명

7. 건축분과

- 1) 동산조성공사 : 지난해 부터 시작한 새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2/25 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27 전국직장선교 연합회 주최 『3.1절 기도회』에서 설교(영락교회)
2. 신성종 목사
· 2/22 - 24 국제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하와이 연합감리교회 및 연합침례교회에서 개최되는 하와이 국제 교역자 목회세미나에 이진숙 사모와 초청강사로 초대되어 함께 참석 예정)
· 2/25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로운 교회 묘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계속 실시한다.

- 2) 기도원 확장공사 : 경량 조립식으로 3,000명 -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

- 3) 제2교육관 공사 : 현재 봉사관 앞 주차장에 제2교육관을 짓는다.

- 4) 봉사관 헌당 : 1993년 3월 10일 헌당

8. 봉사분과

- 1) 대외구제 : 1993년 11월, 소년소녀 가장돕기, 맹인 개안수술 비용지원, 무의촌 의료봉사, 미화원 위로회, 노약자 중식 제공, 무료 합동 결혼식등 대외구제에 힘쓴다.
- 2) 바자회 : 1993년 10월 15일(금), 베타게 광장 혹은 본당뒤 주차장에서 전교인이 참여하는 바자회를 개최한다. 수익금은 장애자를 위해 쓴다.

9. 포상분과

교회의 포상 규정에 따른 포상

10. 홍보분과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국내외에 배포하고, 새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위해 교회소개 비디오를 제작한다.

11. 섭외분과

- 1) 기념리셉션 : 1993년 9월 5일 기념예배를 마친후 본당앞 마당에서 예배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념 리셉션을 갖는다.

12. 출판분과

- 1) 충현40년사 편찬 : 교회설립 40년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는 『충현40년사』를 편찬한다. 1994년 9월에 발행한다.
- 2) 에베소서 강해 :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에베소서 강해 내용을 책으로 엮어 1993년 8월 중에 발간한다.
- 3) 학술 세미나·선교대회 논문집 :

충현강단



예수님과 바알세불

(마 12:22 - 3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 12:31, 32)

신 성 중

<목사·당회장>

1. 성령훼방죄

본문에는 귀신들려서 눈 멀고 병어려 된 자를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험입어서 여러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죄, 즉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근심죄란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부모가 근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신자들이 저지릅니다. 둘째, 성령소멸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엄격한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나, 간증자를 통해서나, 찬양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도 성령 소멸죄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성령 훼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것으로 고의적



인 죄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훼방죄가 자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죽인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성령훼방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판할 것만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비판할 것만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든 일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세번째로, 성령훼방죄에는 세 가지 정질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훼방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5)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말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둘째, 성령훼방죄는 밝은 증거의 빛 가운데서 짓는 죄입니다. 이는 물라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강퍅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나, 도적질한 자나 이 세상에서 아주 무섭다고 하는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훼방죄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나 사역을 거절하고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2. 바알세불의 정체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별의 별 것을 다 믿는데, 조사를 해보면 뱀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스운 것은 파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불은 같은 말인데, 귀신의 왕에 대한 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바알세불 그런 신을 험입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억지를 부리는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미’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뒤 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은 약간의 틀린 말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은 후에 가게 되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

인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은 벌써 이미 천국이 임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달이나 태양과 같이 장소적으로도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모두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것이며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바알세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한된 범위에서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훼방죄나 성령을 근심케하는 죄나,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을 좀 빼자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는 배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 부자들은 헬스 클럽에 나가고 골프를 치니까 날씬한 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면 허리가 동통하다. 그런데 문제는 동통하면 고혈압이나 성인병에 잘 걸려 결국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뇌졸중으로 죽는다. 그래서 요즘은 너도 나도 다이어트를 하고 살빼기에 힘을 쓴다.

그런데 영적인 군살이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회적으로도 남에게 주제를 있기 때문에 너무 동통해지고 있다. 이렇다가는 한국의 교회가 중풍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야 한다. 주는 개인 주는 교회, 그래야 한국 교회는 이 사막에서 참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신성중 목사 설교 방송

- 국동방송(FEBC) 1188KHz
토요일 오후 6:30~7:00
- 기독교방송(CBS) 837KHz
주 일 오후 7:00~7:30
- 미주기독교방송(KCBN)
수요일 오전 9:10~10:00
목요일 오후 6:10~7:00

● 독자의 글 ●

“과연 충현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

김 경 숙
(제2교구 성도)

누구나 어린 시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한번쯤 교회에 안아가본 사람이 없으리라. 나 또한 이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음을 고백한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때가 1985년 4월. 만물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소생하듯 나의 잠자던 영혼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한두번 교회에 나갔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에 나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택하신 백성은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노력 없는 대가가 있겠는가! 남보다 늦게 주님을 알았기에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먹기에 힘을 썼다. 전적으로 주님이 도우셨음 이리라.

1988년 5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반포로 이사하게 되었고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충현교회를 알게 되었다. 이것도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40일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찬양대와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한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적은 탓으로 몇 달이 지나도록 마음의 갈피를 못잡고 눈물을 흘리며 출석하였다. 몇 십년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돌로 지은 성전으로는 동양에서 최고라는 건물을 자랑하며 등록한 연도를 따지며 이방인 취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특별구역장을 두고 새신자들을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관리해나간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다. 워낙 규모가 크니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지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마땅히 가져야 되겠으나,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늘에 소망이 있는 교회,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임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외부로부터 “과연 충현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 : 3·1절기대회에서 설교(27일 전국직장선교연합회 주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 : 22일 ~ 24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국제교역자 목회세미나에서 강의
2.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충만함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3. 대통령 취임식날(25일)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되게 하소서.
4. 봉사관 헌당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5. 각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6. 각 교구의 지역별 모임을 통해 교구가 부흥되게 하소서.

◆ 교구 모임을 마치고 나서 ◆

작은 성도를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주님

이 수 현
(가브리엘 찬양대 대원)



저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리고 싶다. 주님 보시기에 작고도 가없는 딸이건만 많은 무리 속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나홈에서의 오후 7시 새가족 환영 및 친교모임 - 조금은 망설임 끝에 문을 노크했을 때 음악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다는 것이 놀라웠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

1교구 지도목사님이신 이조웅 목사님과 이종석 장로님, 정연희 전도사님, 각 구역 권찰님들...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하여 섬기는 배가기도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끊임없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 시킨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1부는 예배, 2부는 식사, 3부는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몇시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드렸는가를 이분들

께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웅크려 눈물이 펄펄 도는 것은 왜 일까? 1교구 모임이 이렇게 커 보인다면 모든 교구가 합심하여 이런 상태로 진전한다면 충현의 식구들이 배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무리 속에 작은 성도일 뿐이라고 생각하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님께서 좋은 분이시며 사람을 알고 닦는데 인간이 생각내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심을 생각하며 잘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도 감사하고 더욱더 이 93년에는 주님께 충직한 딸로 열심히 큰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한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신에게 답변할 수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에도 예쁘게 보아주시리라 생각을 하며 이 작은 성도를 좋은 무리속에서 커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심을 크게 감사 드린다.

며 칠전 전방에 있는 한 부대를 방문하였다. 방문목적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의 일일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부흥회 참석대상들은 부대의 장교들과 그들 가족들, 그리고 사병들이었다. 부대안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것부터 매우 흥미 있는 일이었다. 사실 이 흥미때문에 처음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군복음화의 차원에서 가고자 했다. 부대에 도착하여서 지휘관을 만났을 때 놀랐다. 그것은 우리 일행을 영접하는 그의 모습에서였다. 그는 분명히 부대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서 섬김의 모습이 물씬 풍기고 있었다. 그에게서 풍기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겸손, 그리고 겸손함이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일을 “사랑”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다. 믿음에 기초한 사랑을 한 결과 부대 안 구석구석에 배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기초할 때 인격과 인격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92년도 최우수부대로 표창을 받으셨으며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또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다른 부대에는 없는 특수훈련이 이 부대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훈련은 전술훈련 중에 최고급 전술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한 주간 동안 계속

된다. 이 훈련의 고비는 목요일 저녁이다. 그러나 이 훈련을 받은 자들은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생활이 달라진다. 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이 부대



영혼을 사랑하는 지휘관

조 동 원

(목사, 9교구 - 출판부 지도)



에 80명 이상이 된다고 했다.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으로 갔다. 조그마한 방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8명의 사병들이 열심히 성경통독을 하고 있었다. 말씀의 역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신구약성경을 한 주간 동안 통독하는 훈련이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있겠는가? 왜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었는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훈련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곧 이것에 부대장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지휘관이었다. 육신적으로 강한 군인을 만드는 일은 군대의 생명이 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혼에 대하여, 그들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훈련을 군

복무 하는 동안 잘 받으면 신구약성경을 30독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니 훈련을 받은 크리스찬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이 일은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젊은이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무엇이 앞서서는 절대로 이세상을 예길수 없다고 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문득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준바알 놓으셨다는 말씀에 생각났다.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구석구석에서 이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부대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주여, 93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연락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봉사위원회 내에 상조회 설치

교회는 초상을 당하여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교우의 가족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장례절차 등을 주선하여 상가에 도움을 주고 친교와 협동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에 봉사위원회 내에 상조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상조회에서 담당기로 했다.

따라서 상조회에서는 장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일(사망신고에서 입관, 운구, 조문객 접대까지)을 맡아서 봉사하게 된다.

상조회 회장은 박치민 장로(봉사위원회 위원장), 부회장은 김경철 장로(봉사위원회 경조부장)가 맡게 되었다. 앞으로 상을 당한 가정에서는 상조회에 연락하여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회는 임시로 현 차량봉사실(지하주차장 1층)로 정하고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락은 주간에는 교회(552-8200 교환 284번)로 야간에는 400-0134, 271-13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주 겨울 수련회 12개 부서

금주 내로 교회학교 수련회 끝나

지난 1월 14일 중등2부 겨울수련회로 시작한 교회학교의 겨울수련회가 금주에 12개 부서가 시작함으로 거의 끝나게 된다. 영아, 유치, 국민학생들 대상의 부서들은 교회에서, 고등부와 청년부는 교회와 충현 기도원 등을 이용한다. 각 교회학교에서는

각 교우들과 가정에 교회학교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겨울수련회에 보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학교의 행사가 교회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서	일자	주제	장소
영아부	2.22-23	작은 왕자	아멘홀
유치부	2.22-24	예수님 닮고 싶어요	교205,201
초등1부	2.22-24	예수님을 만나자	교212
초등2부	2.22-24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교육관314
초등3부	2.22-24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교육관307
초등4부	2.22-24	천국시민의 생활	교육관201
초등5부	2.22-24	생명의양식을 먹자	교육관414
초등6부	2.22-24	경건의 능력을 갖추자	교육관507
청년1부	2.28-3.2	예수제자의 비전	교육관507
청년2부	2.27-3.1	땀 흘리는 그리스도인	베다니홀및기도원
에바다부	2.22-23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교육관109



◆충현전도대 훈련을 시작하며◆

첫사랑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전도

임 성 환

(목사, 23교구 - 전도위원회 - 사랑부 - 지도)

제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처음 한 두달은 웬지 가슴이 쉴레어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이든시간에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창피한 것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한결같이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였을 뿐이어서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저에게 실제적이어서 하루라도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몸에 알레르기가 난 듯 심장이 편치 않았고, 모일 때면 사시절령한 세상 이야기는 일체하지도 않으며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자모하듯 밤을 꼬박 새우며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은 저에게 평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일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면서 가족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주었듯이,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의 일이라면 애인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참으로 저 자신을 이 세상에 잠겨 매무는 외인인이나 그제로만 여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라"는 말씀은 저의 삶의 기둥이 되어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죄까지도 죽을 각오로 싸웠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저 혼자만의 일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옛날의 군잔다'식으로 찬양 추억거리로 전락되었으니 이 무슨 망치한 일입니까? 확실히 사단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독한 주사를 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언제 부터인지 우리는 비틀거리며 힘을 못쓰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열정있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고상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모를지기 전도란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해야 하는법이란다", "모든 자주 모이는 배를 들이면 생활에 규모가 없어지지 않겠나" 적당히 다시 말해서 "주일 오전예배와 수요일집회정도만 참석하면 된다. 그 이상은 광신자야",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 가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장래를 생각해야 해",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러느냐 너 그러다 쉼베중 환자가 되어버린다 너는 상황윤리란 것도 모르냐"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지 수년이나 된 베테랑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있으니 이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4에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다. 임위하신 처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물론 단번에 현은 구원이야 변함 없겠지만 그리스

도인이 사단에게 포로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배침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열려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러나 이제 되찾아야 할 열에 있습니다. 세련된 것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열정을 잃어버려서, 차라리 투박해도 열정있는 서투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백배나 낫겠습니다.

혼자서 비밀스럽게 충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뭉쳐서 함께 보고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헌신자들이 시급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회개자 추수하게된 밭을 바라 보시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전도대는 이러한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의 헌신의 장소입니다. 매주 전도의 헌신자로 전도현장에서 사역할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임미누엘!!!

충현 성경연구원 '93 제1학기 개강

오는 3월 6일(토) 저녁 7시

주간성경공부, 제38기 교사양성부, 제8기 찬양대원양성부

충현 성경연구원은 오는 3월 6일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93년도 제1학기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학기를 시작한다.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학기를 개설하고 있는 충현성경연구원은 성도들이 주간 중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주간성경공부반과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을 위한 찬양대원양성부가 있다. 93년도 1학기는 3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주 동안 모

인다. 주간성경공부는 화, 수, 목요일에 각 두 강좌씩 총 열 개 강좌 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데 타교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반 중에 택일할 수 있고 찬양대원양성부는 일요일 저녁에 모인다. 장소는 모두 교육관 301호이다. 원서는 오늘(2월 21일)부터 교육국(교육관 103호)에서 접수한다.

'예수 사랑 큰 잔치' 이틀 전도대원 모집

3월 3일부터 12주간, 수요일2부예배 후

실제적인 전도훈련으로 전도 가능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을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도는 교육과 훈련과 실제 경험이 필요하기에 전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충현전도대 훈련대원을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자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다.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할 이 전도훈련을 통해 어떠한 현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총12주간에 걸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예수 사랑 큰 잔치'가 결국은 전도 운동이므로 훈련된 전도요원들이 먼저 활발하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전교인들이 전도하는 전도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1993년도 1차 충현전도대 훈련은 다른 해보다 더욱 중요

한 것이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며 교회 전도 운동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1. 모집대상 :
 - 직능별 전도회원(실업인, 법조인, 교수, 학원, 군, 특수, 문서, 매스컴, 교정, 경찰, 직장, 금융, 예술, 체육인, 의료, 농어촌전도)
 - 남녀전도회 일원
 - 교구지역장, 구역장
 - 교회학교 교사
2. 교육 및 훈련 기간 : 3월 10일 ~ 5월 26일(12주간)
3. 개강예배 : 3월 3일(수) 수요일2부예배시
4. 훈련비 : 10,000원
5. 훈련시간 : 매주 수요일2부예배 후

제11교구 단합대회

오늘 4부 예배후, 교구모임실에서

제11교구(교구장 김은호 장로)는 오늘 (21일) 오후 2시 30분 부터 11교구 모임실(교육관 307호)에서 교구 단합대회를 갖는다.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교구 식구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명실공히 교구 식구로서의 마음을 갖고자 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

장년1부, 은혜중에 마친 겨울 수련회

200명 예상에 400여명 참석

지난 2월 11일(목), 저녁 7시에 시작한 장년1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졌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장년1부 지도 권성수 목사의 강의를 시종일관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200여명의 참석을 예상했으나 4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준비한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장년1부는 이 겨울수련회를 통한 장년1부 배가를 위해 1월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었다.